



	담당	변호사
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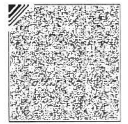
2010구 합18178

판 결 서



서울 행정법원





서울 행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영철 1061112-18502181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110동 200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태호

피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송수행자 경명선

변 론 종 결

2010. 7. 8.

판 결 선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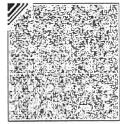
2010. 7. 22.

주 문

1.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6. 29. 정부가 3개 위원회 및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 1지구) 사업을 추정금액 3,443억 원, 같은 4공구(여주 2지구) 사업(이하 3, 4공구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을 추정금액 3,156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방식)라는 입찰 및 계약방식으로 국제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은 2009. 9. 말경 개찰을 완료한 결과 3공구 사업은 3,163억 원으로 입찰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4공구 사업은 2,982억 원으로 입찰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각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그 각 공구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2010.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추정가격) 산출근거와 기준(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3. 2.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현재 이 법원에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취소청구의 소가 계속 중인데,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위 재판과 관련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개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보공개규정'에 의하면 공사·설계 등의 내부방침 결정사항, 공사계획 수립사항 등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위 사항과 관련된 정보이고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피고가 당초에 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닐뿐더러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5호는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제4호와 제5호가 모두 직무수행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장이 초래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직무나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나아가 제4호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취지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등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제5호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취지는 정보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위와 같이 제4호와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그 각 규정의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처분 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5호의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가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제4호가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앞서 본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을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 2009구합50909호로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한 하천공사시행계획 등 취소청구의 소가 2009. 11. 25. 제기되어 현재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위 재판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된 한강살리기 사업 중 특정한 2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위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 등에서 위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위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공사는 그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이를 토대로 입찰 및 사업시행 적격자 선정과정을 거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 한강살리기 사업 중 일부 구간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 추정가격의 산출 근거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는 등으로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보공개규정'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고 특히 한강살리기 3, 4공구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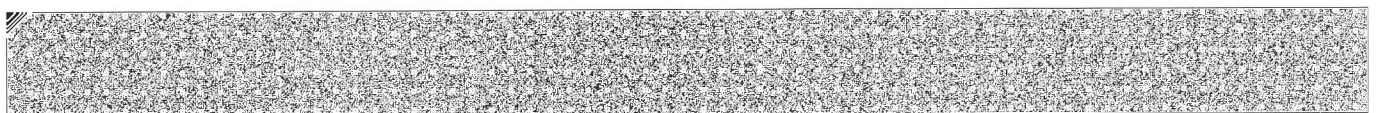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_____

 판사 곽형섭 _____

 판사 배예선 _____





정보목록

아래 공사의 추정금액(또는 추정가격) 산출근거(기준 포함)

-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 1지구) 사업
- 한강살리기 4공구(여주 2지구) 사업. 끝.





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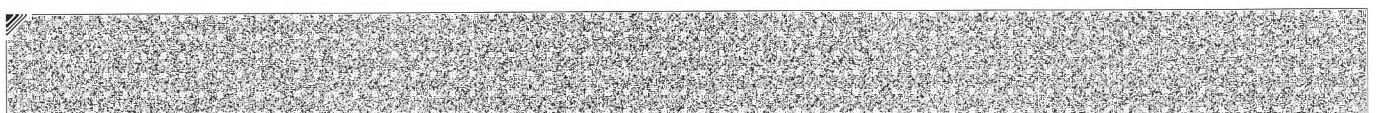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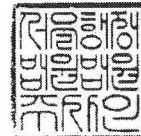


정본입니다.

2010. 7. 26.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이 덕 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